

연중 제16주일

기도서 395면 (B해)
제1독서: 예레 23, 1-6
제2독서: 에페 2, 13-18
복음: 마르 6, 30-34

숲정 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마르코 6, 34)

강론

예수님의 연민의 정

김태운 신부 / 송천본당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서 연민의 정(憐憫의 情)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불쌍하고 가련함을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도 군중들과 함께하시면서 예수의 일행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시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치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쉴 겨를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행군하던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의 원의대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쉴까'(마르코 6, 30)했지만 군중들이 앞질러 왔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연민의 정을 풍부히 지니셨던 예수님의 면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모든 양들에게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마태 18, 12) 자상하고 폭넓은 사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요즈음처럼 무관심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양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양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참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들을 돌보는 권한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어린양들을 잘 돌보아라(요한 21, 15)는 말씀에는 양들을 잘 돌보기를 원하시는 위타의 성격이 짙습니다. 이 양들은 사도 개인이나 사제 개인의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라는 말입니다. 목자로 불리움을 받은 이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데는 사사로운 이익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르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양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눕어 주시고
고이 쉬라 물티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시22).

소리

왜? 몇몇치 못한가?

땅덩이가 좁다고는 하지만 한쪽에는 물난리가, 한쪽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지만 수해는 침소봉대 대서특필이고 한발 파에는 깔아 뭉개지는 푸대접의 나날이 이어졌다.

거기와 파행이 예상됐던 142회의 임시국회도 끝났다.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공존하면서 우여곡절끝에 각종특위 구성, 대법원장임명등의 국정감사와 조사법안처리 등등 국회밖의 문제를 국회 안에 끌어들여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준 성공의 국회라고 평하고 싶다.

다만 구인제를 골자로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대화의 타협이란 과정없이 표대결이란 힘의 논리로 이뤄진점이 약간 못마땅하다.

구인제란 무엇인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나 관계인을 일정한 장소로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다. 그렇다면 그 법이 왜 국회에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광주문제와 5공화국의 비리를 청산키 위한 아닌가?

물론 성역이 없다고는 했지만 증언대에 서야 될 사람을 비호하려는 여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명분이 없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TV에서 방영되는 역사드라마 속의 숙종과 장희빈 그리고 장희재 등 주역배우들과 5공화국의 인물들을 대입시켜 보는 재미로 산다고는 하지만 결국 숙종도 민의를 존중,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인현왕후를 맞아들여 선정을 베푼다. KAL기를 폭파한 소련은 그당시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이란여객기를 쏜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인했다.

왜? 우리의 지도자들은 몇몇하게 자신들의 잘 잘못을 만천하에 고하지 못할까? 괜히 짜증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무더운 여름이 더욱 무덥게만 느껴진다.

숲정이 산책



깊이있는 '미사'를 위해

미사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형식으로 분명한 세상살이 속에 파묻혀 잊었던 주님을 다시 찾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148시간의 한 주간 중에 이 한 시간마저 분심과 잠념, 헛갈린 마음으로 때워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목적도 없이 허우적거리는 피곤한 시간의 연장이 되고 만다. 이에 미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위한 몇 가지 권장사항이 한국주교회의 88-65호의 공문으로 하달 되었기에 요약 기재하니 각 분당은 깊이 숙고 하길 바란다.

1. 침묵의 중요성 : 잠심(潛心)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한 '침묵'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에 각 독서전 해설은 생략하고(입당전에 주석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복음 끝에는 잠시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으며 ㉢영성체후엔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할애,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 기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성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토록 하기를 권장한다.

2. 응송과 복음전 노래의 통일

기도에 따라 교우들의 교송이 제대로 이루어 지므로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응송과 복음전 노래(알렐루야)를 교우들이 다같이 합송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후렴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그 후렴을 받아 반복하고, 이어서 선창자가 시편 구절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만을 반복해야 한다. (1988. 6. 27 한국주교회의 전례위원회)

3. 미사준비 늦어도 미사전 십분전에 성당에 입당, 흠어진 마음을 정리하며 그날 사용될 성경 구절과 성가번호를 미리 찾아 읽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끌어 올리므로 그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묵상토록 권장 한다.

아무쪼록 준비 있는 미사를 드리므로 다시 세상에 나가 힘차게 살아갈 원기(元氣)를 얻고 성당문을 나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



성서와 함께

11. 성서의 달력

히브리인들은 우리 조상들처럼 음력을 사용하였다. 음력에서는 지구가 태양을 한바퀴 도는 365일보다 11일이 적은 354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몇 년마다 한번씩 윤달을 두었다. 바빌론에 귀양갈 때까지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달력을 썼는데, 이 달력에 의하면 새해가 가을로써 시작된다.

바빌론 귀양시절 동안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각 달의 고유명칭을 숫자로 연결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아달(우리 식으로 양력 2-3월)은 12, 니싼(양력3-4월)은 1로 표시하였다. (우리 조상들도 동짓달은 12월로, 정월은 1월로 표시). 그들은 새해를 봄철인 니싼달 곧 1월에 두었다.

히브리인들은 바빌론의 숫자와 달 이름을 받아들여기는 했지만, 한 해가 가을에 시작된다든 전통적인 관념은 버리지 않았다. 이 관념은 농업과 깊이 관계된다. 한 해의 마지막은 추수가 끝나는 때이다. 기나긴 건조기간이 끝나고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새해이다.

물론 민족적 명절로서의 새해 이외에 현대 유대인들은 몇 가지 다른 의미의 새해들을 제정하였다. 회계년도와 학사력 등은 서구의 본을 따라 양력으로 계산 한다.

주간은 불규칙적인 해(年)의 계산법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는 날들이고, 7일째인 토요일은 안식일로서 일에서 손을 떼고 주님께 찬미를 드리게

된다.

하루의 시작은 우리네처럼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지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유대식의 계산법에 의하면 최후만찬과 십자가 처형사건은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 공관복음에 따르면 최후만찬과 십자가 처형은 니싼달 15일에 있었다. 요한복음에선 이 두 사건들을 해방절 준비일인 니싼달 14일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요한복음 작가의 신학적 반성이 들어있다. 과일절 어린양의 살해가 해방절 준비일 정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요한은 예수의 죽음을 여기에 맞추므로써 예수께서 모든 이를 위해 과일절 어린양처럼 대속의 제물로 바쳐졌음을 증인한다 (요한13, 29).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달력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경우 성서의 때에 대한 기록을 오해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들어 공동번역 출애굽기 12, 18의 '정월'은 우리 식의 1월을 가리키지 않고 음력 3월인 히브리인들의 니싼달을 의미한다. 같은 장 첫 구절에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빌론식의 달력 계산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과는 달리 히브리인들은 한 해의 시작을 통상 티쉬리달(양력 9-10월)로 정했다(레위 23, 23이하).

곡식의 씨를 뿌리는 때와 맞춘 것이다.

측 개 업 장 미 미 용 실

최신유형 컷트 피마 드라이
피부관리(접제거)

원장 이 남희 (테레사)
전주시 금암2동 1602-24
☎ 71-0161

상관성당과수원

<복숭아 직판매>

한상자 (5관) 최저렴가격
- 달고 맛있읍니다 -

연락처 : 상관성당 사무실
☎ 82-5434

☒ 내과 전문의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위 상 양 (프림치스코) · 김 병 희 (글리리)

☎ 병원 4-1225, 자택 75-0034

전주시 교사동2가 1-13 완주농협 · 우신히otel 앞

교 구 소 식

1. 총대리 김환철 신부님께서 '세계 가정 사목 세미나'에 참석하시러(7월16일-8월1일) 까지 호주 시드니로 출국하십니다. 무사히 다녀오시도록 많은 기도바랍니다.
2. 웨끌라레 운동의 전국 마리아 불리: 23일-26일 장소-서울 서강대학교
3. 통일문제 세미나: 18일 오전11시 장소-전동천주교회 강사-이영희 교수(한양대,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대상-교구내 전 신부님 주최-정의구현 사제단
4.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피정: 24일(매월 네째주일) 09:30-17:00 장소-광주시 북구 본촌동 사랑의 씨튼 수녀원(062-525-2004) 대상-수도 성소에 관심있는 고졸이상 30세 미만의 가톨릭 미혼여성, 교통-고속버스 운암동터미널 하차후, 길 건너서 19번버스→본촌동 파출소 하차(수녀원 버스대기) 준비물-미사, 필기도구(회비-2,000원)
5. 남·여 수도성소자 피정: 일시-23일(오후4시부터)-24일(오후5시까지) 장소-예수고난회, 광주 명상의 집(시내버스 10번, 110번 경유) 회비-11,000원 대상-수도 성소에 관심있는 분. 신청-전화(062)524-5004, 8004.

두레상

세기 성체대회를 앞두고

토끼와 거북의 경쟁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산이나 계곡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협력거리며 산에 오르다 보면 문득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느림보 거북이 쉬지 않고 달려가 토끼와의 경쟁에서 이긴다는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끈기와 노력이 경쟁에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거북이 정말 느림보일까요. 거북은 물에서는 느리지만 바다에서는 유유히 헤엄 칠 수 있습니다. 반면 토끼는 쉼새게 뛰며 산비탈을 오르내리지만 바다에서는 헤엄 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거북에게 불공평한 물에서의 경기를 벌이고도 사람들은 거북일 느림보라고 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경기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른 소질을 타고난 아이들이 획일화된 학교제도에 의해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구별됩니다. 사회에서도 사람의 가치와 권력, 돈, 명예 등을 목표로 한 외길에서만 우열로 판별됩니다.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살아야 할 거북이 엉뚱하게 험뎅이며 산오르기 경쟁에 나서야 하듯,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질에 맞지 않는 삶의 경쟁마당에 억지로 끌려나가 싸워야 하고 패배의 쓴 맛을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넓고 다양하게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도록 가르치면서 자신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겨진 채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경쟁에서 잘 못 댄 패배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심으로써 그분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과 우열의 평가가 참된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이웃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을 서로 나누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한 형제임을 느낍니다. 성찬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잔치입니다.

요십이 (780) 김병오

광주의거때 3사관장이 발표건의를 5번하였다고 민정당은 발표했는데

당시 계엄본소장은 건의 회수를 기억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떤 근거로 5번이라는 건의 회수가 나왔는지 해명하십시오!

만일 해명을 못한다면 우리 서민들은 3사관장 발언이 모두 옳다고 인정하겠음!

1분 명상

태양없이 는 달이 빛을 낼 수 없듯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명동피부과의원

사무장채용공고

1. 자 격 : 천주교신자 • 남자 • 군복 부필 또는 면제자 • 30세이상-40세미만 자 • 고졸학력자에 한함
2. 구비서류 : 이력서, 경력사본('86-'88 수 검계별),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 신부님 추천서 없음
3. 제출마감: 1988. 7. 24
문의: 84-8307

천주교 서화동교회

유치부·국교반·중고 입시반 취미반 유은혜피아노학원

* 실기 및 이론 철저지도
원장 김미남 (세리파나)
김은영 (블리나)
이러 동부시장 사거리 마동제과 2층
☎ 54-5361

간판·프랑카드·네온사인
상패·행사기념품·실크인쇄

무지개 광고역
RAINBOW AIR PLANNING CO

김창식 (스테파노)

☎ (0652) 82-3050
자 84-7772

황수경산부인과

여 의 사 황수경
산부인과전문 (크리스티나)
이승렬 (엘리아)
판문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 골목
☎ 84-7272

축 개 업

호남 페인트

가옥건물, 방수, 도장
송권, 이강순 (리드비나)
병무청 사거리 북계도로 옆
☎ 82-3933

신창규치과의원

전문의: 신창규 (이오스딩)
이연자 (모니카)
위치: 인후아파트 2단지 앞
☎ 4-2232

□북전주시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김진룡
수·유 5-1712 사목회장 황의옥

- * 사목회장: 황의옥(파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업의도(사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 반미사안내: 20일(수) 오후8시, 13반-이연우(3-0591)
- 1. 예비자입교식: 오늘 공식미사후, 오늘부터 성탄반 교리가 시작됩니다. 많이 힘써 주세요.
- 2.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18일-23일 8:30-12:30 미사도구및 교재, 교재대금-500원
- 3. '88 중·고중앙산간학교: 임실 진배부락, 27일-30일 하계교리-23일~26일(오후2시-6시)
- 4. 모임: 꾸리아-오늘, 오후2시
울뜨레아-20일(수) 오후7:30
- 5. 금요성서: 매주(금) 오후7:30

□지난주봉헌금: 1,319,030원 □교무금: 628,0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1. 금주는 선교주간: 꾸리아회의-오늘 오후2시
 - 2. 차주는 애령주간: 선령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3. 안나회 모니카회 월례회: 22일 오전10시(저녁미사없음)
 - 4. 성도신심및 성체현의에 대한 연수회: 일시-7월28일 저녁8시 대상-사목회임원및 위원, 제단제장, 반장님, LM간부(의무적 참석) 일반신자
 - 5. 주일학교 하계교리: 20일-23일
 - 6. 중·고생 하기교리및 하기캠프: 교리-23일-25일 캠프-26일-29일
 - 7. 유아세례: 29일 저녁미사(대상자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 8. 금주전례: 해설-문송옥 봉헌-나인구부부 복사-박희정, 양정용 신자들의 기도-25반, 26반, 27반
 - 9. 차주전례: 해설-박영근 봉헌-강남수부부 복사-양재순, 설동규 신자들의 기도-28반, 29반, 30반
 - 10. 미사안내: 구세주의 모친Pr 차주-매피의 모후Pr
- 지난주봉헌금: 743,580원 □교무금: 394,0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 1. 성모회: 공식미사후(2층 회의실)
 - 2. 주일학교 여름성경 학교: 18일~23일까지
· 21일-유아세례(오전9시) 첫교백성사(오후3시)
· 22일-불놀이(송광사 야외 수영장)
· 23일-첫영성체식(어린이 미사때)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3. 중·고생 여름 수련회: 28일-30일
 - 4. 18일(월) 새벽미사 없고 오전9시 여름성경학교 시작 미사있음니다.
 - 5. 목욕 예비자반 교리 잠시 휴강 합니다. -9월1일 시작합니다.
 - 6. 금주전례: 해설-정식의 복사·독서-교육분과 기도-덕진12반
차주전례: 해설-김후만 복사·독서-사목회 기도-덕진13반
 - 7. 금주 본당 청소: 인자하신 모친Pr-23일 오후1시30분
- 지난주봉헌금: 783,990원 □교무금: 425,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5-4212

- * 미사시간 변경: 토요일 학생미사(특전미사) 오후8시
 - 1.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20일-23일 장소-성당 부모님과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2. 글라라회 축일 행사: 일시-8월7일 미사후 장소-이리 작은자매의 집 글라라수녀원 신청하지 않은 회원은 24일까지 신청(3-2821)
 - 3. 모임: 공식미사후-모이세회, 구역장회, 꾸리아(오후2시) 청년연합회(오후4시: 예비신자포함) 30세이하 미혼 남녀 차주 공식미사후-에덕회 에스텔회(30일)
 - 4. 구역미사: 모임-7,8월은 씩니다. 20일나눔잔치-동산5구역
 - 5. 금주청소: 평화의 모후, 차주-최인도의 위탁
 - 6. 금주전례: 해설-김택권 독서①이동열 ②전준순
차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조용기 ②김진순
- 지난주봉헌금: 266,575원 □교무금: 172,000원
□수요헌금: 28,400원

*서신동

사제관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4-2214 사목회장 박병열

- * 벽돌헌금 합: 우리들의 정성어린 벽돌 한장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 1. 예비자교리 안내: 매주 목요일-오전10시 오후8:30 빠진분은 월말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 2. 금주모임: 꾸리아-공식 미사후(오늘)
 - 3. 성교회 임원: 회장-유창수 부회장-박하규 총무-조인규 재무-한문희 매월 둘째 주일 공식 미사후에 모임을 갖습니다.
 - 4. 여름성경학교: 18일부터 23일까지 오전8:30 시작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바라웁고 찬조금도 받습니다.
 - 5. 금주본당청소안내: 인자하신 모후Pr 차주-자비의 모후Pr
 - 6. 금주미사안내: 자비의 모후Pr 차주-평화의 모후Pr
 - 7. 금주미사전례: 해설-선종현 독서-신천우 권경진 차주: 해설-선종현 독서-오정중 신덕순
- 지난주봉헌금: 247,730원 □교무금: 147,000원

*송천동

사제관 주임신부 김태운
사무실 74-1004 사목회장 소병울
수녀원 4-1142

- 1. 첫영성체교리: 12일 오후5시부터-첫영성체 30일
 - 2. 여름성경학교: 18일 오전9시부터 23일까지
 - 3. 중·고등부 하기교리및 수련회: 23일부터 28일까지
 - 4. 꾸리아 월례회: 17일 오후2시 강당
 - 5. 성가대 월례회: 22일 오전10시30분
 - 6. 오늘은 교무금 봉헌주일입니다.
 - 7. 차주는 나눈의 날: 이달의 나눔(임요셉형제)
 - 8. 금주본당청소: 자비의 모후Pr 23일 오전11시
 - 9. 금주전례: 해설-서복자 이진강 독서·기도-까리따교회
차주전례: 해설-김광자 박서영 독서·기도-인자하신 어머니Pr
- 지난주봉헌금: 350,030원 □교무금: 137,00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 1. 오늘: 3월달부터 현재까지 전입해오신 형제자매님의 인사있음.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2차헌금이 오늘과 다음주에 있음. 숲정이 가족 두밤나들이 신청마감임, 꾸리아 요한회
 - 2. 21일: 숲정이 가족 두밤나들이 (29일-31일)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신청자 조별모임(야영장비 점검있음) 21일 오후8:30
 - 3. 23일: 제대회(오전10시)
 - 4. 초등부 여름성경학교(25일-28일)
초등부 성경학교 교리책 구입하세요(1권에 500원씩)
 - 5. 금주본당청소: 화-하늘의 문 두-증거자의 모후
 - 6. 미사안내: 바다의 별 7. 미사해설-강두호
 - 8. 금주전례: 독서·기도-박종윤, 고영숙
봉헌·기도-강원모, 박봉자
차주전례: 독서·기도-정주봉, 허옥순
봉헌·기도-점이룡, 박춘근
- 지난주봉헌금: 392,480원 □교무금: 233,0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 1. 오늘의 모임: 안나회, 공식미사후 참석하세요.
 - 2.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25일-30일 오전9시-12시30분까지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 바랍니다.
 - 3. 일상 기도문 액자 구입하여 기도 합시다.
 - 4. 교백성사는 매 미사 15분전에 씩니다.
 - 5. 예비자 교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 6. 금주간 모임: 제대회 21일 어머니 미사후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 7. 신축헌금은 신입하고 납부합니다.
 - 8. 이사오고 가실때는 교적을 함께 가져오고 가져갑니다.
 - 9. 중·고생 여름캠프: 26일-29일 신청바랍니다.
 - 10. 오늘 미사후 국민 학생들을 문 어머니는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 11.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T셔츠 판매 합니다.
 - 12. 안내: 오전8시 이순영 박동철, 10시30분 함권술 나동진, 4시 자모회, 저녁8시 김병선 채수원
- 지난주봉헌금: 616,820원